

FAO 곡물시장뉴스



FAO 곡물시장뉴스

해외곡물시장 담당자

■ 우크라이나 곡물 무역업자들 제분용밀 수출 제한 조치에 동의

우크라이나의 곡물 무역업자들은 악화되어 가고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식량 공급을 보호하기 위해 제분용밀 수출 제한 조치에 합의했다.

우크라이나 곡물협회 이사장 Vladimir Klimenko는 지난 1월 27일 키예프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1분기에는 90만 톤의 제분용 밀이 수출될 것이고, 2/4분기에는 30만 톤이 추가 될 것이라 밝혔다. 수치는 변동 될 수 있으며, 내년에 수확할 겨울 곡물의 상황이 좋다면 상향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동부 지역 분리주의 반군과 교전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상승하는 식량 가격을 상쇄하기 위해 충분한 비축량을 유지하고 수출 안정화를 바라고 있다. 러시아에서도 이와 비슷한 움직임이 생기고 있는데, 러시아의 식량 인플레이션과 통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달에 수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양국은 주요 밀 수출국이다.

7월 1일 시작되는 우크라이나 제분용 밀의 총 수출은 710만 톤이 될 것이고, 낮은 품질의 가축사료용은 570만 톤이 될 것이라 Klymenko 이사장은 전했다. 또한 1월부터 6월까지 사료용밀 수출은 300만 톤이 될 것이라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농무부 장관인 Oleksiy Pavlenko는 아직까지는 겨울 곡물의 상황이 좋은 편이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보통 8월과 9월에 겨울 밀을 심는다. 추운 날씨에는 곡물들이 성장을 멈추고, 수확은 7월에 시작한다.

■ 러시아, 아르헨티나, 가축들이 미국 밀 가격에 악영향을 주다

미국의 밀 재배 농부들은 운이 좋지 않다. 3년 만에 최저 수확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수확량이 넘쳐나는 덕분에 가격은 급락했다.

최대 수출국인 미국에서는 중국, 브라질, 나이지리아의 바이어들은 물론 충분했던 재고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해외 판매를 포함한 수요는 거의 20년 만에 최저이

며, 달러 환율 급등으로 인해 다른 국가의 곡물보다 이점이 줄어들고 있다. 옥수수 사료를 많이 사용했던 국내 소 축산업자들의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시카고의 밀 선물가는 지난달에 17% 하락했다. 작년에는 아르헨티나, 러시아, 그밖에 유럽의 지역에서 세계 생산량을 기록한 반면, 미국의 국제 무역량은 196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낮아진 곡물가격 덕분에 Grupo Bimbo SAB와 Panera Bread Co같은 밀 바이어들은 낮은 가격에 구입하게 되었고, 유엔에서는 지난달에 4년만의 최저치를 기록한 식량 가격을 측정했다.

CHS Hedging Inc의 리서치 디렉터인 Joe Lardy는 “미국 밀은 경쟁력이 없으며, 전 세계에는 충분한 공급자가 있다”고 전하며, “저렴한 선적비와 낮은 밀 가격을 제공하는 공급업자들이 있는 한, 미국은 더 이상 주요 수출국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밀 선물은 12월 26일 이후 부셸 당 5.0775 달러 하락하였고, 원유가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22개 원자재 가격을 나타내는 블룸버그 원자재지수는 6.5% 하락하여 1월 26일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블룸버그 달러 스팟 인덱스(Bloomberg Dollar Spot Index)는 3% 오른 반면에, The MSCI All-Country Index of world 주식은 2.1% 내려갔다.

지난해 기록적인 세계 수확량과 선적 이후, 국제 수출은 5월까지 4% 하락한 1억 5,919만 미터톤으로 떨어질 것이라 미국 농무부는 전했다. 그리고 미국 수출은 국제 무역량의 16%를 감소시키면서 21% 하락한 2,520만 톤이 될 것이고, 데이터가 시작한 1960년 이후 최저치라 한다.

12월 1일 미국의 재고는 전년의 15억 2,500만 부셸보다 3.4% 증가 하면서, 지난 세 달 동안 국내 사용자와 수출업자들의 수요가 4억 1,500만 부셸로 떨어지면서 이는 1997년 이후 최저치라 미 농무부는 측정했다.

5월 30일에 끝나는 12개월간의 사료용 밀 소비는 4년 만에 최저치인 34% 떨어진 1억 5,000만 부셸이라 미국 농무부는 전했다. 축산업자들은 2009년 이후 두 번의 기록적인 수확으로 인해 폭락한 가격 때문에, 옥수수를 가축 사료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가격이 떨어지면서 농부들은 다른 농작물을 심게 되었다. 국제 밀 생산은 작년 기록보다 0.5% 떨어질 것이고, 미국 농부들은 4년 만에 가장 적게 씨를 뿌렸다고 Memphis, Tennessee-based researcher Informa Economics Inc는 전했다.

세계 최대 종자 회사의 Jeff Koscelny는 1월 13일 인터뷰에서 국내 공급의 3분

의 2를 차지하는 겨울 밀은 9월부터 11월까지 파종을 하는데, 이상 기후와 늦은 옥수수, 대두 수확으로 인해 4.6% 떨어졌다고 밝혔다.

“2015/2016년의 공급 위험은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이고, 2016년에는 가격이 오를 것이다”고 Colin Hamilton 맥쿼리 그룹의 상품 리서치의 글로벌 헤드는 1월 19일 보고에서 밝혔다. “가축 사료 수요 증가와 옥수수 가격 회복 덕분에 오를 것이다”고 덧붙였다.

뉴욕 농업 리서치기관의 Christopher Narayanan는 북반구의 수확이 시작되는 5월 전에 수출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재고를 할인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우크라이나, 캐나다의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러시아의 무역 난관을 대신할 것이라 미 농무부는 전했다.

“가격은 더 하락할 것이다” 3월말 전에 선물가가 5\$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 예측한 Narayanan는 이렇게 전하며, “국제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충분한 판매자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수출 관세는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정부 데이터에 의하면, 금융 자산 관리자들은 시카고 밀 선물가와 옵션 주식을 4주 연속 줄이고 있고, 12월 초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가격이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텍사스와 캔자스에서 수천 만 마리 가축을 기르면서 매년 4,800만 부셀의 곡물을 사용하는 Mutt Schuman at Cactus Feeders Inc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2012년 5월 밀 사용량이 증가하고, 2013년 8월과 9월에는 옥수수 사용량이 완전히 낮아지면서 회사는 괜찮아졌다. 2013년 6월에 부셀 당 63센트로 떨어진 밀은 4개월 후에는 3.33%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Amarillo의 상품 조달팀 부회장인 Schuman는 “옥수수보다 비싼 경우, 밀을 사료로 주는 경우는 없다”고 전했다.

■ 밀 시장 균형 되찾기

오랫동안 밀 수입국이었던 파키스탄은 새로운 곡물이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재고를 처리하고자 밀수출 시장에 재입성하고자 한다. 하지만 국제 시장에서 상품가가 떨어지고 있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는 줄어드는 미국산 밀수요 때문에 밀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 이집트가 이달 초에 프랑스에서 18만 톤의 밀을 구입하면서, 미국산이 국제

시장에서 더 이상 경쟁력이 없음을 보여 주었다. 3월 밀 선물은 최근 몇 주 보다 적은 11pc 기록되었다.

현재 국제 밀의 비율은 톤 당 275~300달러 수준이다. 하지만 수출 밀에 할증 운임과 추가 비용이 붙으면서 톤 당 345달러가 되었다. 이런 이유로 파키스탄 무역업자들은 이익을 내고자 톤 당 300~345달러에 팔고자 한다. 하지만 파키스탄 밀에 특별히 낮은 수입세를 부과하는 스리랑카를 제외하고는 다른 바이어를 찾기는 어렵다. 하지만 수출시장에서 러시아의 입지가 줄어들면서 파키스탄 수출업자들에게는 기회가 생겼다.

공급 과잉을 줄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연방 정부에서 인상된 로컬 가격으로 인해 기대에 못 미치는 수확으로 인한 부족량을 채우기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낮은 가격에 수입을 허용하면서 공급 과잉이 생겼다. 하지만 국내에는 충분한 재고량이 있다.

파키스탄 통계청 데이터에 의하면, 파키스탄은 2013년에 366,015톤을 수입한 반면에 2014년 7월~11월에는 182.4m 달러에 상당하는 727,687톤의 밀을 수입했다. 신드 수상은 신드 정부를 고려하지 않고 밀수입을 허용한 연방 정부의 결정을 비판해왔으며, 특히 신드는 편자브 지방과 함께 현지에서 생산한 상당한 양의 밀을 비축하고 있다.

식품부는 제분업자에게 로컬 생산 상품을 40kg당 3,450루피에 제공하는 반면에 수입업자들은 40kg당 2,600~2,800루피의 비율로 밀을 대량 수입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는 재고가 생기게 되었다. 필요 이상으로 수입을 허용하는 이유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이런 일을 겪은 뒤, 정부는 싼 가격의 밀을 피하고, 지역 농부를 보호하고자 11월 수입에 20pc의 규제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후에 몇몇 거래는 취소되었다.

신드 주정부는 수출업자들이 국제 시장의 낮은 가격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을 커버할 수 있도록 연방 정부가 이들에게 톤 당 50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도록 요청했다. 결국에는 수출량이 3백만 톤이 넘어서 보조금은 15bn루피까지 올랐다. 식품 안전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안건이 생겼다.

현재로서는 편자브 지방에는 2백만 톤, 신드에는 0.6백만 톤이 초과하고, 재고는 파키스탄 농업 저장 서비스 협회(Passco)에 있다. 식품 안전부 장관은 이슬라마바드에 첫 수확이 시작되기 전에 재고가 정리되지 않는다면, 상품을 팔지 못하게 된 농부들이 전국적으로 시위를 할 것이라 전했다. 재고품이 낮은 가격에 유통

된다면, 새 곡물의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농부들이 농작물의 적정가를 받아들이지 않기에 이를 것이다.

20만~25만 톤의 값싼 수입산 밀이 아직 시장에 남아 있는 관계로, 제분공장업자들은 로컬 생산품과 혼합하고자 저렴한 수입산 밀을 사고자 한다. 신드 정부는 생산자로부터 130만 톤의 밀을 확보했다. 파키스탄 국영 은행 2013/2014 연간 보고서에 의하면, 2014 회계연도 25.3백만 톤의 밀 생산량은 목표로 한 25.0백만 톤보다 조금 높았고, 정점이었던 2011 회계연도 25.2백만 톤보다 높다.

■ 북미 보리 파종 10% 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의 맥아 공급으로 인해 북미의 보리 파종은 올해 10% 가량 오를 것이다 - 비록 사상 최저로 떨어지는 캐나다 주식을 구제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

캐나다 농업식품부(AAFC)에 의하면, 2015년 캐나다산 보리 파종 수확은 9% 오른 2.60백만 ha가 될 것이고, 작년에 세 번째로 최저를 기록한 3.09백만 에이커(1.25백만 ha)의 미국은 약 10% 오를 전망이라고 한다.

캐나다의 기상 예보는 여름철 휴한으로 남겨진 초원의 감소와 전년도에 비정상적으로 습했던 봄 이후에 “평균적인 종자 조건으로 회복” 할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또한 AAFC는 다른 사료 곡물의 막강한 공급 때문에 사료용 보리는 2013/14년 수준보다 10% 떨어지는 반면에, 맥주보리는 작년 수확연도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맥주보리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와 미국의 전년에 수확한 맥주보리의 품질은 좋지 않으며, 추수기에 비가 내린 덕분에 “2015/16년에 좋은 품질의 맥주보리 공급은 극히 제한될 것이다”고 AAFC는 전했다.

국제곡물이사회에 의하면, 미국은 2014/15년에 예년과 달리 490,000톤의 맥주보리를 수입할 것이라고 한다.

목요일에 발표된 보고서에 의하면, 의회는 “맥주보리는 주로 캐나다에서 구입하는데, 낮은 품질로 인해 유럽 연합 같은 다른 곳으로 사업이 이동될 것이라 예상된다”고 전했다.

압박으로 인해 바이어들은 생산자들이 공급을 확보하도록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가장 많은 보리를 재배하는 미 북부인 몬태나, 노스다코타, 아이다호 주의 파종은 국가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올해 맥주보리 계약은 톤 당 235달러 제공된 2014년과 “거의 근접한” 가격에 체결되고 있다고 AAFC는 전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미국 곡물 단지에서 가격이 감소하는 이점이다” 미국 맥아 회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농림부는 전했다. 또 “2015년 보리 생산 계약은 아주 빠르게 이용되었다”고 덧붙였다.

캐나다의 대초원에는 새로운 맥주보리 계약이 톤 당 215~230 캐나다 달러로 가격이 정해진다.

올해 북반구의 곡물 파종은 봄 파종 시기보다 빨리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이 언급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옥수수가 낮은 곡물가의 상황에서 많은 농부들에게 비료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재배하기 비싼 작물로 바뀐 덕분에 대두가 최대 이득을 보고 있다.

하지만, 수수를 포함한 다른 곡물도 인기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례 없는 높은 수출로 인해 옥수수보다 2014/15년의 높은 평균가를 가진다고 미국 농림부는 전했다.

“캔자스, 오클라호마, 텍사스의 농부들은 올해 수수를 심을 것이다. 옥수수만큼은 아니지만, 대두보다는 조금 더” 라고 미국 중개인은 Agrimoney.com에 전했다.

■ 기록적인 밀 수확으로 러시아의 가격 폭락 소용없게 되다

유럽에서 미국까지 넘쳐나는 공급으로 러시아의 이번 밀 시즌에 적용한 어떠한 규제도 가격에는 미미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기록적인 세계의 수확량은 수출 문제를 겪는 러시아로부터의 손실을 만회할 것이라고 CRM Agri-Commodities의 시장 컨설턴트 설립자인 Benjamin Bodart는 전했다. 해외로 운송되는 대부분의 러시아 밀은 벌써 발송되었다고 덧붙였다. 감소하고 있는 러시아 공급량에 대한 우려로 인한 반등에서 오는 이득이 줄어들면서, 국제적 기준이 되는 시카고선물거래소의 밀은 12월 18일 이후 19% 떨어지고 있다.

세계 4번째 밀 수출국인 러시아는 식료품비 증가를 일으킨 통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운송을 제한하고 있다. 규제 담당자들은 곡물 검사와 철도 운송을 줄이고 2월 1일부터 선적에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 발표 하였다. 반면에 이해는 되지 않지

만 통상 금지령 제안을 벌써 정했다고 러시아 부총리 Arkady Dvorkovich는 지난 1월 19일 전했다.

“유럽은 아직 충분한 밀을 확보하고 있다”고 Bodart는 인터뷰에서 밝히며, “시장은 이미 1월말에서 6월말까지 러시아에서 어떠한 종류의 수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러시아산 곡물 운송에 대한 기대는 떨어지면서, 미국은 종전에 2,200만 톤으로 예측한 것과는 달리 이번 시즌에는 2천만 메트릭 톤으로 예상했다. 벌써 1,700만 톤이 수출되었다고 러시아 농림부는 지난 1월 19일 전했다.

1월 12일 미국 농림부 보고에 따르면, 세계 밀 생산량은 7억2,340만 톤을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에이전시는 유럽 연합과 우크라이나, 캐나다로부터의 선적이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다.

러시아는 가뭄과 산불로 수확을 망친 2010년 이후 10개월간 밀수출을 금지하여, 이로 인해 2년 이상 가격이 올랐다. 2012년에 실시된 특별 규제로 인해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밀 거래는 현재 수준보다 78% 오른 부셸 당 9.4725달러까지 거래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는 환율 불안정과 불황 가능성과 싸우고 있다.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소비자 식품 가격은 전년과 비교하여 12월에 15% 올랐다고 한다.

러시아의 밀 세금 부과로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런던 라보뱅크 인터내셔널의 농업 연구 소장인 Stefan Vogel은 밝혔다. 6월에 끝나는 세금은 내년 수확기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수출 의무가 많은 수출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Vogel은 전하며, “대부분 금지시키지 않을 것이다”고 하였다.

러시아는 내년 수확을 망칠 경우를 대비해 재고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하면서 국내 수요량을 지키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다. 이년 전 7백만 톤과 비교하여, 7월 1일까지 천만 톤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블룸버그 뉴스와의 이메일에서 농무부는 밝혔다.

최근 몇 달간 건조한 날씨가 러시아를 휩쓸면서, 겨울 휴면기의 곡물 상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2015년 수확량이 7천만 톤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Agritel의 농업 고문가에 의하면, 규제가 6월을 지나 장기화 되면 밀 가격은 오

를 것인데 반해 시장에서는 벌써 올해 러시아산 밀 공급이 감소되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 상황은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고 Agritel의 컨설턴트인 Sebastien Poncelet은 “가격은 대부분 정해져 있다.” 전했다.

■ 인도 총리 곡물 수출에 빠르게 대처하길 원하다

패널로 지명된 인도 총리 Narendra Modi는 쓰레기를 줄이고 곡물을 좋은 가격에 팔길 원한다면 정부 곡식 저장고에 쌓인 밀과 쌀 수출을 허용하는데 인도가 빠르게 대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목표량의 배 이상을 넘는 재고량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1억 9,500만 톤의 생산량 중에서 고작 10% 밀과 쌀을 수출한다.

60년 전 심각한 식량부족으로 인도가 수입을 하도록 한 뒤 만들어진 정부 거대 기업인 인도 식품 공사(FCI)는 2007년 풍작 이후 산더미처럼 많은 쌀과 밀을 쌓아 놓고 있다.

“관료 정치 때문에 수출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이미 시장의 원동력은 변했고, 해외 시장에서 인기 있는 가격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무산되었다.”고 주요 패널인 Shanta Kumar는 목요일 리포트에서 밝혔다.

현재는 오랜 협의 과정을 거친 후에 정부는 수출과 지역 판매에 대해 대응하게 되었다.

패널은 FCI가 지역 사무실을 없애고, 주요 주의 조달에 집중하며, 전산화에 투자하고 또한 민간 부문에서 기술과 경영 전문 지식을 가져오길 원한다.

패널 중의 한명이자 저명한 경제학자인 Ashok Gulati는 “발 빠른 FCI의 대처는 의화를 버는데 도움을 줄 것이고, 버려지고 해충 피해를 입는 여분의 곡물 재고를 막는데 처리하는 많은 돈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인도 식량 분배 네트워크 점검 제안을 한 모디 총리는 식품부에 권고안을 검토해주길 요청했다.

중국 다음으로 세계 최대의 쌀과 밀 생산국인 인도는 186억 4,000 달러의 엄청난 푸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빈민을 위한 초저가의 쌀과 밀이 거의 반 이상 버려지거나 도난당하고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밝혔다.

패널은 인구의 40%만 커버하는 푸드 분배 프로그램을 줄이길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현재 한 사람 당 5kg에 비해 한 사람 당 7kg의 높은 월별 할당

에 유리하다.

전 농림부 장관인 Kumar는 수혜자 수를 줄이면 한 해에 보조금 3,300억 루피 (535백만 달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값싼 곡물을 사용하는 수백만 명의 유권자들을 화나게 할 수 있으며, 인도 국회의 승인이 필요할 것이다.

농업 경제학자 B.C. Barah는 “최신의 권고안들을 수락하기 전에, 많은 절차적 난관들이 있기 때문에 수혜자 수를 줄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 전했다.

■ 중국, 식량 안전 증가를 위해 로컬 곡물 저장을 높인다

중국은 지방 정부에 곡물의 저장 증가를 요청하고, "장기적인" 식량 안전 문제를 막고자 공급을 유지하길 요청하였다고 목요일 중국 내각이 밝혔다.

중국 성의회(星議會)는 각 지방의 성장(省長)들은 로컬 곡물 생산과 저장 증가, 안정적인 지역 물가 유지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통보에서, 중국의 곡물 공급은 물과 토지 부족 때문에 "장기간 힘든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증가하는 식량 안전 문제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중국 정부 웹사이트는 “지방 정부와 자치부서들은 곡물 안전 보장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도시는 최소 보름 정도를 커버할 충분한 곡물과 식용 기름 저장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생산과 저장소 관리 외에도, 지방 당국은 식량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하고, 비료와 농약 사용 감소 방법을 안내하고, 중금속에 오염된 농지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방 정부는 소득 과세 증가를 위한 산업 확장의 우선권을 갖고 있으나, 농업 발전을 위한 우대책은 없다. 농업은 로컬 GDP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성의회(星議會)는 농지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을 재확인 하였고, 비농지의 판매와 관련된 부조리한 지방 관료에 대한 감사를 할 것이라 약속했다.

업계 분석가들은 중앙 정부가 수입 쿼터 이슈를 컨트롤 하고 있는 한, 이러한 움직임은 곡물 수입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 수수, 미국 농민들의 관심을 받다

지난해 많은 미국 농부가 곡물가 하락으로 고전했지만, 네브래스카 농부 Mike Baker는 수수라는 비장의 무기를 갖고 있었다.

풍작으로 장기간 상황이 좋지 않았던 미국 곡물이 중국의 치솟는 가축 사료 수요와 외국산 옥수수에 대한 선호도 덕분에 갑자기 수요가 많아졌다. 지난 해 중국의 미국산 수수 수입은 15배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 옥수수보다 가격이 올랐다. 이는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국제 곡물 무역거래에 광범위한 영향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드문 현상이다.

네브래스카 농민 마이크 베이커는 중국 수요에 맞춰 지난해 가을 수확한 800 에이커 규모의 수수를 거의 팔았다. 그는 “내가 주도권을 쥐고 값을 부르는 지난해가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중국의 구매 속도는 많은 무역업자와 마일로(곡식용 수수의 일종)로 알려진 가뭄 농작물인 수수를 다루는 곡물 상인들을 놀라게 했다.

캔자스 주의 일부 엘리베이터 운영사업자는 수수에 옥수수 대비 프리미엄을 10% 얹어준다. 통상 옥수수에 프리미엄 10%를 건네주는 것과 반대가 됐다.

아직 수수 선물 시장이 없어서 무역업자들은 옥수수 선물을 기준 가격과 위험 관리에 사용한다.

수출 급증으로 대규모 수수 거래 회사인 Archer Daniels뿐만 아니라, 소규모 곡물 취급업자와 운송 업체들도 이득을 보고 있다.

“이 일을 하는 30년 동안 겪어보지 못한 현상이다” 곡물을 철도로 미국 항구까지 수송하는 캔자스 회사 WindRiver Grain의 곡물 판매 매니저 Charlie Sauerwein는 말했다. 이 회사는 수수 선적 증가 덕분에 해외시장 수요가 약해지면서 밀 수송 수요가 감소한 부분이 벌어들였다.

지난해 들어 11월까지 미국 수수는 13억 달러 어치의 570만 톤이 중국에 수출돼 전년 동기 수출 물량 36만 2,000톤에 비해 급증했다고 미국 농무부는 집계했다. 중국은 2013년 전에는 미국에서 소량을 수입했다.

중국 수요에 계속 응할 만큼 미국 수수 물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미국 수수 수입이 계속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곡물상들은 말을 전했다.

미국 농무부는 전년 대비 3억 9,200만보다 오른 4억 3,300만 부셸을 생산했다고 예측한다. 이와 반대로, 2014년에는 142억 부셸의 옥수수 생산이 기록되었다.

INTL FCStone의 Mike O'Dea는 중국이 봄부터 수확이 가능한 호주에서 중국 수수 물량 중 일부를 조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이로 인해 현재 "아주 비싼" 수준에서 수수 가격이 조금 내려갈 수도 있을 것이라 한다.

중국에서 수수는 돼지, 닭, 오리의 사료로 쓰이는데, 이는 중국에서 생산된 옥수수보다 수입 수수가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가들은 밝혔다. 또한 중국은 농가 수입을 보전해주기 위해 옥수수를 높은 값에 구매해주고 그래서 옥수수 시세가 높게 유지된다고 한다.

사료용 외에도, 미국 수수는 고량주를 빚는 원료로 활용된다고 미국 농업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해 중국 정부는 자국이 허용하지 않은 GM 옥수수의 통관을 금지했고 이후 중국의 미국산 옥수수 수입이 급감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최근 생명공학이 적용된 옥수수의 수입을 허용했다. 그러자 중국의 미국 옥수수 수입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 미국 수수 구매가 줄어들 수 있다.

중국 농무부는 곡물 수입 정책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선임 연구원 Ma Wenfeng은 중국 축산 분야에서는 옥수수를 수수보다 고급 사료로 치기 때문에 수수가 들어온 자리를 차츰 옥수수가 메울 것이라고 한다.

분석가들은 중국시장에서 수수가 과거보다 인기를 끈 데에는 유전자변형식품(GM) 옥수수 파동이 영향을 줬기 때문이라 한다. 수수에는 GM종(種)이 없어 통관 과정에서 걸릴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또 옥수수에는 중국 업체들이 수입할 수 있는 상한이 씌워져 있는 반면 수수에는 쿼터가 없다.

미국에서는 최근 글루텐 프리 곡물을 사용하는 식품 회사와 연료로 사용하는 가축 업자, 에탄올 업계에서 수수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오는 8월에 결산하는 2014/2015 시즌에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수수의 62%가 수출될 것으로 미국 농무부는 예상하며, 이 비율은 2년 전에는 31%였다.

■ 전 세계 농민들 고정된 곡물 가격 원하다

매년 1% 이상 증가하는 세계 인구를 따라가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식량 생산 증가의 필요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구 증가 외에도, 1인당 곡물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은 전 세계에 증산층 확대를 가져

왔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생활과 식습관의 기준이 나아지고 있다.

2003년 이후, 사료용 곡물(보리, 옥수수, 수수, 혼합 곡물, 귀리, 호밀, 수수)과 1인당 연간 소비 되는 식용 곡물(밀과 쌀)과 대두의 양은 747파운드에서 13% 오른 846파운드까지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대략 전체 인구 성장률과 비슷하며, 이런 추세가 지속 된다면 곡물 생산은 인가 증가 비율 수요를 맞추기 위해 두 배로 증가해야 한다.

지난 몇 년간 공급 불안감은 세계 농부들이 생산을 증가하도록 하는 동시에 곡물 가격이 최고 수준으로 오르게 만들었다.

하지만 2013년의 밀, 옥수수, 쌀, 대두 그리고 2014년 밀, 옥수수, 대두의 기록적인 생산 덕분에 가격이 훨씬 낮아지게 되었다. 또한 경작지 확대와 값비싼 농작물 생산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었다.

2014년에는 쌀과 옥수수(일반적으로 조곡)의 추수 경작지 면적이 2013년보다 낮다. 미국에서는 옥수수 생산이 세계 기록을 세웠다.(2009년 에이커 당 164.7 부셀에서 173.4 부셀로 증가) 쌀과 조곡 생산량은 2013년과 비교하여 2014년에 떨어졌다.

2015년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 남미 농부들은 대두 파종 증가와 옥수수 경작지 감소 때문에 떨어진 가격에 대처하고 있다.

미 농무부의 예비 농업 미래전망 2015(정상적인 기후와 국제 곡물 시장에 외부 충격이 없다는 것을 바탕으로 한 모형예보)는 미국 농부들이 2014년보다 적게 옥수수와 밀, 대두를 재배할 것이라 밝혔다.

만약 우리가 적게 수확하면, 곡물 수요 증가를 맞추는 것은 순조로운 날씨와 상관관계가 될 것이다. 하지만 국제 곡물 시장의 안정도 중요하다.

러시아와 같은 주요 수출국에서 수출 가능성에 의문이 생기는 경우에 기록적인 밀 생산을 했던 경우에서 본 것처럼, 가격은 변동 될 수 있다.

국제 쌀 거래는 총 생산의 9%이고, 조곡은 12%, 밀은 22%, 대두는 37%이다.

국내 식품가나 식량 안전에 대한 염려로 인한 곡물 수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곡물 공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날씨보다 예측하기 훨씬 어려운 가격 변동을 야기한다.

■ EU, GMO작물 재배 규제 바꾸다

EU는 유럽에서 엄격히 금지된 GMO작물에 대한 결정권을 회원국 자율에 맡기기로 하였다.

유럽 의회는 다수결로 회원국에 자율성을 주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전자 변형 옥수수인 MON 810은 유럽 연합에서 유일하게 상업적으로 재배하는 GMO작물이다. 비록 유럽 의회와 총리들이 각 회원국에 자율성을 주는데 동의하긴 했지만, 유럽 연합의 과학자들이 허가에 관한 열쇠를 가질 것이다.

미국, 아시아와 달리 유럽에서 GMO 재배에 대한 규제가 까다롭다. GMO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유럽과 북미의 농업 방식이 크게 달라서(GMO 사용을 포함하여), GMO는 미국-EU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요한 쟁점 사항 중 하나이다. 이번에 새로 승인된 법안은 재배와 관련해 적용될 뿐, 인간의 먹이 사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가축 사료용 GMO에는 해당 되지 않는다.

지난 7월 EU 집행 위원장인 Jean-Claude Juncker는 “비록 대다수의 회원국들이 사용에 반대하긴 했지만, 위원회는 새 유전자 변형 작물의 수입과 가공을 법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는 현재의 규정 때문에 법적인 변화는 필수 불가 하다고 전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스페인의 MON 810 재배면적은 13만 7,000ha에 이르며, 현재 EU 국가 중 MON 810을 가장 많이 재배하는 국가라고 한다. 하지만 EU 전체 옥수수 재배면적에서 MON 810이 차지하는 비중은 1.56%에 불과하다.

미국 종자 회사인 biotech giant Monsanto에서 판매하는 MON 810 옥수수는 유럽산 옥수수들명나방 해충에 저항력이 있도록 변형되었다.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룩셈부르크 등은 옥수수 형질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새로운 법안 아래,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금지하는 이유는 늘어날 것이다. 거국 정부(National governments)는 앞으로 특정 에코시스템의 보호 또는 전통 농부들의 GM작물 오염에 드는 비싼 비용에 관한 사실들을 인용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보호 단체인 그린피스는 법안에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 바이오테크 회사에게 유럽식품안전청(Efsa)보다 선출된 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유럽식품안전청의 평가에 맞는 국가 환경 관리 평가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법에는 회원국 정부가 유럽식품안전청의 GMO 작물 평가에 "상호 보완적인" 환경적 근거만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영국, 스페인, 스웨덴 등은 EU가 GMO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영국의 보수 단체는 새 법안을 비난하며, “법적으로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지 말고, 회원국이 직접 국가적으로 금지 시킬 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고 전했다.